

happy! 가족의 발견 응. 너는 그러냐?



고객홍보팀 과장 이명재



가족친화 인증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부부 간 인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 사전예방과 인식전환을 통해 일가양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증진을 돕기 위해 행복증진 프로그램으로 '가족사랑 체험-Happy가족의 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차이 여행'을 슬로건으로 10월 29~30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17가족,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래 고객홍보팀 이명재 과장의 수기와 참가 가족의 이야기로 1박 2일의 다복한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5시간의 열정적 강의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의 의미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은 TV나 잡지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아빠 어디가?', '안녕하세요?', '백년손님'과 같이 가족을 소재로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도 '가족 사랑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친 가장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구속'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아름다운 구속'은 우리 원을 '가족친화기관'으로 만들어 준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이번 'Happy 가족의 날'과 같은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게 된 것 같아 반가웠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하는 교육의 참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더 컸다. 흔히 우리 원을 설명하는 표현

중 '전국에 산재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라니,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우리 회사나 나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과 함께 기대를 갖고 참여한 교육은 5시간의 열정적 강의로 충족될 수 있었다. 모두를 사로잡은 열정적인 강의는 비록 모르던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으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응. 너는 그러냐?"

언뜻 소통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는 무성의한 말투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서 소통의 핵심을 배운 것 같아 가장 머릿속에 남는 문장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흔히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다툼이 줄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해'라는 단어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 이해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나의 인식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나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30년 가까이 봄에 댄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나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통이나 스킨십 등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참 힘들다. 또 사소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의 몰이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되는 불통의 과정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인정이라는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응, 너는 그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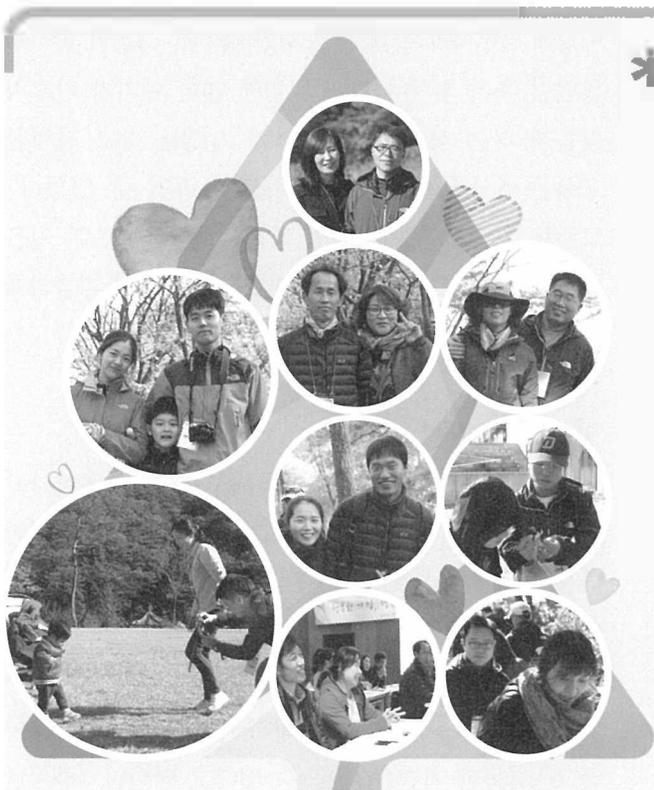
굳이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상대방 그대로의 말과

행동, 마음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자세. 이것이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내 머리카스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각자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양식에 대해 인정하고, 그러함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존중과 배려의 행동인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 누구의 아내와 남편, 누구의 엄마와 아빠, 사위와 며느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살아왔던 '나'에 대한 본질적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어쩌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은 이렇게 잃어버린 나에 대한 서러움이 악화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본연의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인정. 서로에 대한 인정이 배우자를 본연의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다. **홍경진**⁴⁾



*나도 한마디

본부 박경동 과장 가족 김효진

'가족'을 '발견' 한 것 같다. 서로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고, 발견은 즐거운 것 같다. 한 가지.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발견'할 수 있어서 더 고맙습니다.

경기지원 최동희 과장 가족 이연정

가족과 함께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북지원 허성민 이력팀장 가족 송보경

오늘 다시 그날 느꼈던 감동을 깨내보면서 항상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상한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남자이고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입니다.

부산경남지원 이대용 평가팀장 가족 안은정

'happy 가족의 발견' 행사에 참석하여 늘어가는 남편의 얼굴에서 내 눈에 콩깍지 씌었던 젊은 날 남편의 멋진 모습과 함께 지금은 경륜이 더해진 품위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